

☛ 진흥회 동정

기술신보와 기술평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기술력만 보고 자금 지원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국내 중소 전력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돼 오던 '중전기 기술개발자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16일 무역센터 51층 무역클럽에서 업계 대표, 관련 단체, 산업자원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신보보증기금과 기술성평가 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술평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의 기술수준 및 시장성을 평가, 보증해 주는 제도로서 담보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전력기기업체들도 기

술성 평가를 통해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그 동안 소형 단기과제 위주로 이뤄지던 자금지원체계를 대폭 개선, 중소기업형 핵심기술과제에 대하여는 지원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 준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기술담보제도와는 달리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 가치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없는 기업들도 자체 기술력만으로도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협의회 출범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12월 22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전기연구소, KORTA, 전기·전선조합 등 관련기관을 비롯 전력기자재 제조업체로 구성된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협의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에는 산자부 반도체전기과 및 무역정책과 담당관을 비롯 KOTRA 일본실 담당관, 전기·전선조합 담당팀장과 현대중공업, LG산전, 동남물산, 신한전기, 동미전기 등 20개사의 무역실무자들이 참석, 대일전력시장 공략을 위한 정보교환 및 시장진출전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국내 중전기기업체의 체계적인 대일수출촉진을 위해서 각종 정보교환 및 입찰요령, 품목별 중복진출 방지, 국내업체간 출혈경쟁 조정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전담반의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측 담당관은 "정부는 국산 전력기자재의 대일수출촉진을 위해 전력회사 구매자 초청, 대일전력회사 구매정보전달 등의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일수출촉진단 지원금등을 제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